

GYRI ISSUE BRIEF
이슈브리프

제14호 2020.02.

고양시 명장제도 도입 방안

한국공예산업연구소 디자인학 박사 **최연수소장**
banhanda@hanafos.com

경제사회연구부 행정학 석사 **조동익** 위촉연구원
jadi@gyri.re.kr

경제사회연구부 경영공학 박사 **이현정** 선임연구위원
hjlee@gyri.re.kr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공예명장의 정의
- III. 지역공예명장 제도의 현황
- IV. 고양시 공예명장제도 도입 방안
- V. 고양시 공예인적자원 플랫폼 구축 정책제언



요약

GYRI 고양시정연구원
GOYANG RESEARCH INSTITUTE

고양시에는 전통 공예인 및 개인 지역공예가 등 많은 공예인들이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산업 및 생활 공예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공방, 공장 및 개인사업장 등의 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¹⁾. 전통 및 전승 공예인들 중에는 특히 대한민국 명장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칠기, 목공예, 가구 및 단조 등의 직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양시에는 명장들 이외에도 많은 숙련된 공예가 및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공예산업 현황과 고양시의 현황을 비교하면²⁾ 공예제조업 사업체 수는 2,131개로 229개 시군구 중 22번째이며, 종사자 수는 10,549명으로 31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은 1조 7,116억 원으로 43등이며, 영업이익은 1,269 억 원으로 41등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와 비교해서는 자료상으로 업체 현황은 영세하거나 타 시도에 비해 우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한 분석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고양시 공예업체의 운영 등이 타 지자체 등과 비교할 때 미흡 및 영세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견지에서는 공예산업 종사자나 업장 및 영업이익 등의 조사가 공예산업의 특성상 쉽지 않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공예산업이 비교적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지원이 필요하고,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라면 먼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예인 및 공예산업의 양성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공예종사자가 예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공예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자료수집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들이 산업 또는 예술 등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더라도 모두 통계에 잡힐 수 있도록 공예인 및 이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공예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공예인 등록제 및 고양시 공예 명인, 장인, 명장 등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예산업 관련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예산업의 육성 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고양시의 미래산업으로서 공예산업의 발굴 및 활성화 및 이에 기반하는 혁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고양시가 공예인을 양성화하고 능력 있는 공예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지역공예명장제도 운영 및 인증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 시도 및 군구에서 진행 중인 정책들과 조례 등을 살펴보고 고양시의 공예인 육성 및 양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이현정, 조동익(2019).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2) 전국 공예산업 실태현황을 살피기 위해 2015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수록된 공예제조업 세부분류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적용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5년 경제총조사를 활용함. 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 2017.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최근 자료는 2015년임)

I. 들어가며

GYRI

□ 공예명장제도의 필요성

- 공예산업의 구성요소로 인력, 소재 및 시장을 볼 수 있으며, 이중 고양시는 공예명장 등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로는 현대, 산업 및 생활공예 범주의 공예인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³⁾.
- 공예 인력이 고양시에서 최근 들어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예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중의 일부가 충족되고 있다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예 인력의 급속한 확대는 공급에 따른 충분한 수요 확대를 위한 시장 확보와 시장성 높은 공예품의 상품성 인증 등의 방안 등 풀어야 할 당면한 숙제를 던지기도 한다. 즉, 인력, 소재 및 시장의 3요소가 균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예인과 연관산업 및 지자체의 적정한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공예명장을 통한 수공예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공예산업과 4차산업혁명기술을 융합하여 산업·경제시스템의 핵심인 고품질 소량 다품종 생산을 주도하고 또한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의 중심에는 독일의 마이스터 인적자원 육성 제도가 있으며,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크래프트노믹스(Craft+Economics, 수공업경제)가 있다.
- 우선 고양시를 중심으로 확증하고 있는 공예 인력의 발굴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리 및 우수 인력 확보 방안으로 고양시 공예명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공예명장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더 나아가 고양시 공예명장제도는 고양시 공예인의 자긍심과 지위향상에 기여함과 함께,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고양시 공예산업의 새로운 미래가치 달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수공예 인적자원 체계 구축에 비전과 목표를 두고자 한다.

3) 이현정 외(2019), 전계서, pp. 42-46.

II. 공예명장의 정의

GYRI

공예명장 제도는 국가지정, 지역지정 및 민간지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어도 대한민국명장, 명장/명인/장인 등으로 지정·정의되어 운영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예술문화콘텐츠의 발굴·기록·인증·전승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인증제 등을 통해 장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의 공예산업 관련 인증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예명장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국가지정 공예명장의 정의

○ 대한민국명장

- 「숙련기술장려법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우수 숙련기술자⁵⁾로서, 공예분야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로 추가 요건을 포함하여 공예 산업화 숙련기술자 선정에 역점을 둔다.

<표 1>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 제도상의 정의

구분	내용	비고
목적	•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함	• 지역지정 공예 명장/명인/장인의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을 근간으로 제정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 ②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③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④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도 대한민국 명장 선정계획」의 자격요건 • 동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에 따라 차등 과태료 부과(2018.7.3 시행)
관련법	• 숙련기술장려법	• 「기능장려법」(1989.4.1) → 「숙련기술장려법」(2010.5.31)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2019, p. 1.

숙련기술장려법 제1조,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9.12.05.

4) 숙련기술장려법은 1989년 4월 1일 「기능장려법」으로 시작하여, 2010년 5월 31일 오늘날의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기능인」에서 「숙련기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5) 우수 숙련기술인은 「대한민국명장 외」에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 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까지를 통칭함

□ 지역지정 공예 명장/명인/장인의 정의

○ 지역지정 공예 명장/명인/장인

- 지역 내 대한민국명장과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은 공예 숙련자 중 해당 조례의 자격 및 선정요건에 충족되어 선정된 자로 정의한다.
- 지자체에서 지역지정 공예 명인과 장인 운영을 위해 44개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지역지정 조례 제정 현황

-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44개의 조례를 비교 분석 결과 목적, 정의, 자격요건 등은 대동소이하다.
- 명장은 주로 공예 분야에서 사용하고, 명인은 공예 분야 외 음식, 문화예술, 전통분야 등에서 사용하며, 장인은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을 지역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에서는 명장 대신 장인 또는 최고장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표 2> 지역지정 명장/명인/장인 조례 비교

유형	'명장' 용어 사용 조례	'명인' 용어 사용 조례	'장인' 용어 사용 조례
목적	•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문화예술분야와 이에 종사하는 명인을 불굴선 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홍보함을 목적으로 함	•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함	•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정치·경제·문화·체육·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말함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분야 15년 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지역 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지위향상에 기여도가 큰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에 관한 주요 특징은 '명장' 조례와 거의 유사하나 대체로 명인은 공예분야 외 음식·문화예술·전통분야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단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유일하게 장인 '조례와 유사하게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숙련기술 발전 및 기술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에 관한 주요 특징은 '명장'·'명인' 조례와 거의 유사하나 대체로 장인은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지역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목적으로 제정됨 • 다만 대한민국명장 개념과 취지는 같지만 용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또는 건축·음악·무용·공예·놀이·음식제조·연극 등 지역 전통기술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장인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됨

명장 용어는 주로 공예분야에서 사용

명인 용어는 주로 공예·음식·문화예술·전통분야 등에서 사용

장인 용어는 주로 장인은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지역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목적으로 사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9.12.05.

□ 민간부문 명인제도 운영사례

○ 한국예술문화명인(K-Master)

- 민간부문 명인으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선정·인증한 한국예술문화명인이 있다.
- 한국전통 예술문화의 새로운 발견과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의 소중한 예술문화콘텐츠를 발굴·기록·인증·전승하며 유통 촉진을 위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명인 제도를 운영한다.
- 대상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예술문화 활동 및 장인들의 창작품, 생산품, 보존 및 유지가치가 있는 생활도구와 유·무형의 문화, 새롭게 형성되는 보편화된 문화와 전문 종사자를 말한다.
- 2013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 9회까지 진행하여 약 318명의 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표 3> 민간지정 한국예술문화명인 제도상의 정의

구분	내용	비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 예술문화의 새로운 발견과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의 소중한 예술문화콘텐츠를 발굴·기록·인증·전승하는 체계구축과 유통을 촉진하여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한국예술문화명인제도(이하 명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함 	• 「한국예술문화명인 운영규정」(2012.8.23. 제정) 제1조(목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문화명인이라 「한국예술문화명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가 선정·인증한 「한국예술문화명인」(Master)을 말함 	• 「한국예술문화명인 운영규정」(2012.8.23. 제정) 제2조(정의)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회화, 현대회화, 판화, 공예, 도예, 조각, 복원, 디자인, 전통음악 등 총 35개 분야 대상 •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예술문화 활동 및 장인들의 창작품, 생산품, 보존 및 유지가치가 있는 생활도구와 유·무형의 문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보편화된 문화와 전문 종사자를 지정 대상 • 자격조건은 상기 35개 분야와 지정대상에 해당되고, 동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는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동 분야에 종사한 자, 창작품과 전문성이 세계화 대중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작품 및 예술인(전문인) • 명인 특별회원 카드 별부 3년회비 180,000원, 평생회비 500,000원 하여 「한국예총」 행사 등에 할인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접수비: 200,000원(서류접수) • 2차 접수비: 150,000원(1차 서류 통과후) • 인증기간 3년 후 갱신비: 300,000원 • 연회비: 180,000/3년 평생회비 500,000원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문화명인 운영규정」 	

<자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www.yechong.or.kr) 접속일 2019.12.05.

III. 지역공예명장 제도의 현황

지역지정 공예명장/명인/장인제도는 지역별로 명장, 명인 및 장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소관부서는 경제 및 산업과 연관된 부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예산업은 고유의 특성상 산업 및 예술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들과 연관된다. 따라서 지역지정 명장제도는 관점에 따라 운영 및 실행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지역지정 명장/명인/장인 조례 제정 운영현황

- (조례제정)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개, 전남 8개, 경북 7개 순으로 제정하고 있다.

<표 4> 지역별 명장/명인/장인 조례 제정 현황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44	1	9	3	7	1	2	2	1	2	1	1	8	3	1	1	1
지역	강원	가평군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포천시 성남시 하남시	경남 김해시 거창군	경북 경주시 (2) 고령군 구미시 문경시 포항시	광주	대구 중구	대전 동구	성동구	부산 북구	울산	인천	전남 (2) 강진군 나주시 담양군 (2) 무안군 순천시	전북 무주군 임실군 정읍시	제주	천안시	충북

- (명칭) 전국적으로 명장 26개(59.1%), 장인 11개(25.0%), 명인 6개(13.6%), 명장/명인 1개(2.3%) 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명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명칭별 현황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명장	1	9	2	4		1	1	1			1	2	2	1	1	1	26
명인						1	1				3			1			6
명장+명인											1						1
장인			1	3	1				2	1		2	1				11
계	1	9	3	7	1	2	2	1	2	1	1	8	3	1	1	1	44

- (연도) 2010년 이전에는 7개의 조례만 존재했던 반면, 2010년 이후로 84.1%에 해당하는 37개의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다⁶⁾.
- (소관부서) 70.5%에 해당하는 31개의 조례가 산업·경제·노동 관련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예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산업 관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표 6> 소관부서별·지역별 명장/명인/장인 제도현황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산업경제	1	7	2	5	1	1	1	1	2	1	1	3	3		1	1	31
문화/관광		2	1	2			1					4		1			11
기타						1						1					2
계	1	9	3	7	1	2	2	1	2	1	1	8	3	1	1	1	44

□ 지역지정 공예명장/명인/장인 관련 지자체 사례

- (사례 1) 지역 공예명장 자격 및 선정요건에 대한민국명장과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 제한하

6) 고양시정연구원(2019).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 최연수.

고 있어 해당 지역의 공예 숙련자 또는 공예지역을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마이스터 사례에서와 같이 현대생활에 적용 가능한 융합산업으로 전승, 활용을 위한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 (사례 2) 강화군의 경우 「강화군 완초공예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3월 15일에 제정하였으나 장인 부족 현상으로 2019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였다. 이에 「강화군 왕골 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9.1.1)를 제정하여 지역 특화산업인 왕골 공예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가 있다. 지역명장지정 조례 제정 시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사례 3) 광주시의 경우 공예명장 분야만 선정하던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09.2.2, 폐지 2019.5.15)를 폐지하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에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2019. 5. 15. 제정)를 새롭게 제정하여 기존 공예명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향후 광주명장이 「산업기술장려법」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 대상을 공예명장에서 공예 외 명장으로 확대하고, ‘명장 선정 취소’ 항목도 추가하여 명장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적용 근거도 마련하여 명목상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명장제도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 (사례 4) 인천광역시는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예산업 중심의 명장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0.3.29)와 공예를 제외한 일반 산업화 명장을 다룬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6.09.29)를 별도로 제정하여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예와 일반 산업 간의 명장 선정에 있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공예분야의 산업화·현대화에는 고립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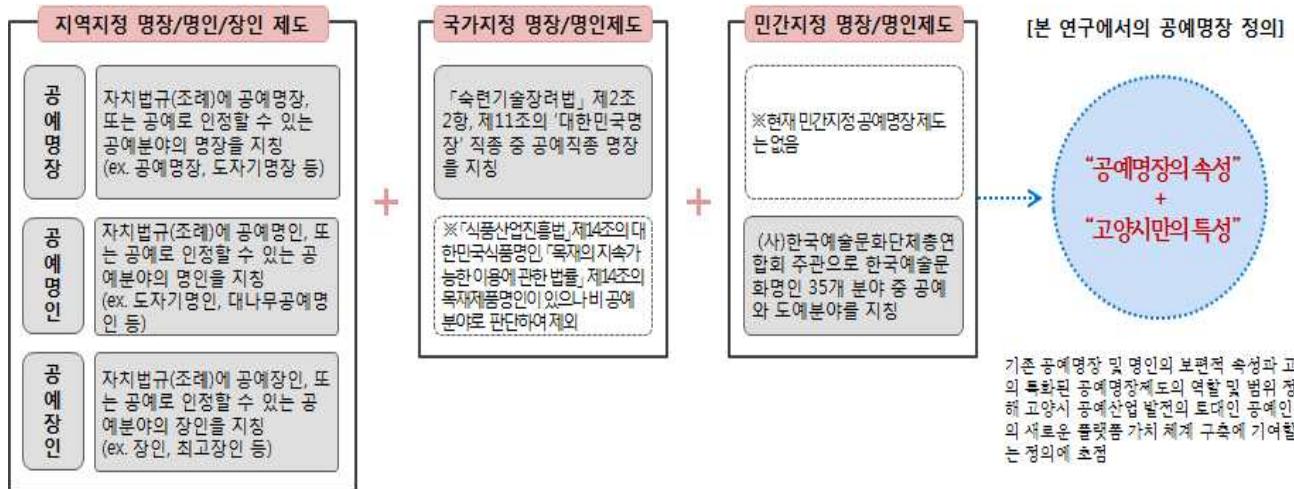
IV. 고양시 공예명장제도 도입 방안

GYRI

고양시 공예명장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정의

- 고양시 공예명장 정의를 위해서는 기존 공예명장 제도의 보편적 속성과 고양시만의 공예명장제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표 7> 공예명장 용어 정의를 위한 기본 전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9.12.05.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시사점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 도입을 위한 역할과 범위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다음 <표8>과 같이 제안한다.

<표 8> 고양시 공예명장 역할 및 범위에 따른 주요 시사점

현황 분석	핵심 이슈	주요 시사점
공예명장 관련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장, 명인, 장인 용어 혼용 • 숙련기술장려법과 조례간의 연계성 미흡 • 대한민국명장과 지역명장과의 명칭 사용에 대한 갈등 • 지역민의 고유한 특성 반영 미흡 • 민간기관의 인증 남발로 신뢰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민의 특화된 공예명장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u>공예산업 혁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u> 필요
국내 공예명장 현황 및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이후 매년 22.0% 증가 • 전국에서 경기도가 명장관련 조례 최다 • 명장(58.1%)>장인(55.0%)>명인(21.3%)>명장/명인(2.3%) 순으로 명칭 사용 • 담당 소관부서가 산업/경제 파트가 70.5%로 압도적이지만 문화·관광 파트도 꾸준히 증가 • 공예 외 명장조례가 공예단독조례 보다 높음(61.4%) • 공예분야에서는 명장·명칭을 선호(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명장을 통한 <u>수공예적인 산업/경제적 보가가치를 창출</u>하는 제도로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경제적 측면 배제 • 지역 공예산업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지자체 조례 답습에 따른 폐단발생 • 대한민국명장, 무형문화재 등 국가지정 인증과의 연계성 미흡 • 일부 공예명장들의 부도덕한 처신과 명예 실추 사건 등 명장 자격 취소 또는 정지되는 불명예 사례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단발성 지원, 타 지자체와의 유사 지원의 방식을 탈피 철저하게 <u>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 무형문화재 제도와 상호 연계발전체계</u> 구축 필요 •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타 산업과의 융합,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u>지속 가능한 공예인적자원 플랫폼</u> 구축 도구의 핵심 역할 필요

- 제안하는 4가지 주요 시사점은 공예산업 혁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수공예적인 산업·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 및 무형문화재 제도와 상호연계 발전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공예인적자원 플랫폼 구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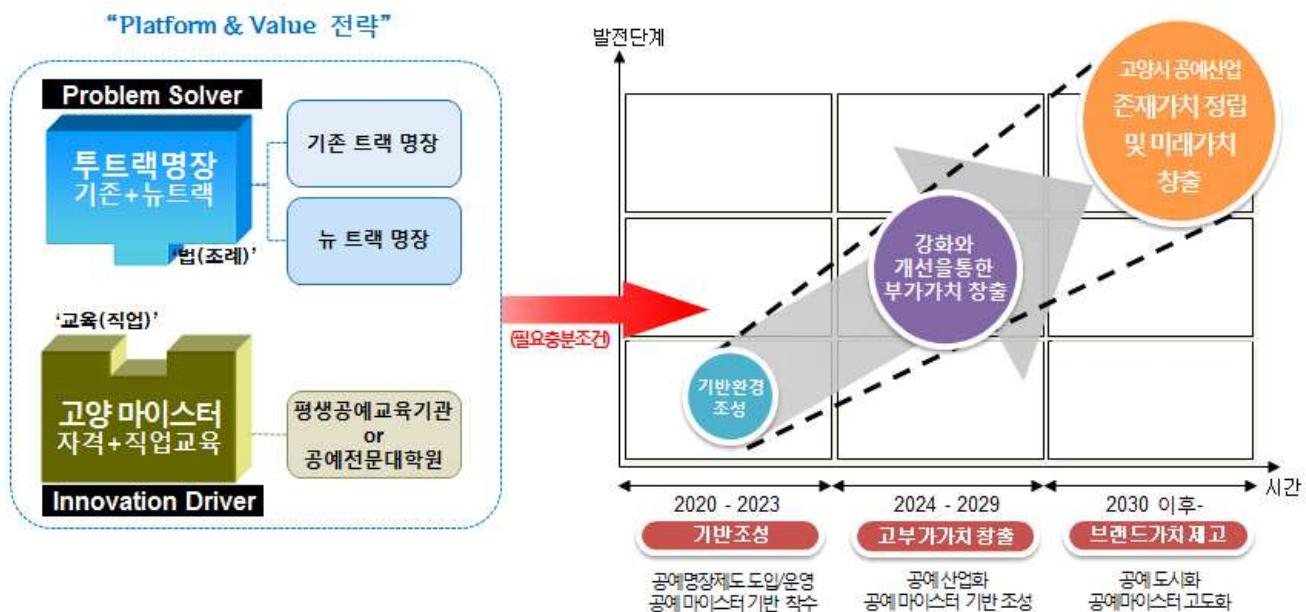
V. 고양시 공예인적자원 플랫폼 구축 정책제언

GYRI

□ '명장제도 이원화'와 '명장기술전수 제도화'를 통한 공예 인적자원 플랫폼 구축 제언

- (명장제도 이원화)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과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공예문화산업 계승발전을 위한 기존 명장제도와 산업화와 현대화에 중심을 둔 뉴(신규) 트랙 명장제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투 트랙(Two-Track) 명장시스템 구축은 이들 간의 상호연계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함이며, 제안된 명장제도 이원화는 고양시 공예산업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예 인적자원 플랫폼 구축”을 성공적으로 도약시키는 양 축으로 볼 수 있다.
 - (명장기술전수 제도화) 고양 마이스터 직업교육을 통해 명장기업 육성, 직업훈련 중심, 산업·경제적 가치, 자생력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적 인적자원 육성 방안 모색을 제안한다.

<그림 1> 고양시 공예 인적자원 육성 플랫폼 구축 정책 방안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 도입 전략 모형

- 뉴 트랙(신규) 명장제도를 병행·도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고양시 공예명장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예인력을 양성(인큐베이팅, 브리지)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고양 마이스터 직업교육 제도를 통해 명장기업 육성, 직업훈련 중심, 산업·경제적 가치, 자생력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적 인적자원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2> 고양시 공예명장 이슈별 주요시사점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 조례제정 방안

- 조례 제정 기본 제안
 - 고양시의 공예명장제도 도입을 위해 앞서 언급한 세부적인 전략 모형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고양시 자체법규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경기도고양시조례 제1853호, 2017. 3. 31. 제정) 및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2151호, 2019. 4. 30. 제정, 9. 27. 개정)에 명장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9> 고양시 공예명장 이슈별 주요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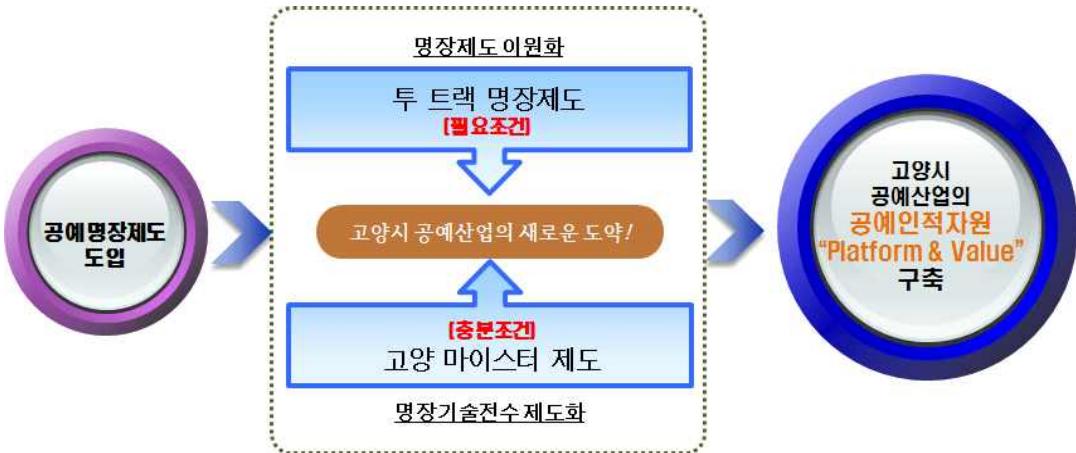
(사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3. 11. 13. 제정)	
제2조 정의	
3. “성남시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민속공예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민속공예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민속공예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소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시장은 명장이 제9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제고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설치	

- 제안하는 조례 제정 및 개정에 포함될 내용은 뉴 트랙(신규) 명장 신설과 산업화·현대화에 특화된 국가 지정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가능한 명장의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한다.
- 모집분야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분야로 하며, 장려금 지급 조건과 시한에 제한을 두어 기존 명장제도를 보완하고, 기술전수 의무사항과 장려활동 평가 지원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 고양시 공예명장 인적자원 플랫폼 가치체계 구축 방안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는 고양시 공예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고양시 공예인의 자긍심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고양시 공예산업의 발전 토대가 되는 고양시 인적자원의 새로운 플랫폼 가치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 단순히 공예명장제도 도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예명장제도를 고양시 공예산업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고양시 인적자원의 새로운 플랫폼 가치 체계 구축’이라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 명장제도 이원화의 필요조건과 명장기술전수 제도화라는 충분조건은 고양시 공예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본다.

<그림 3> 고양시 공예명장 이슈별 주요시사점



- 기존 단발성 지원, 타 지자체와의 유사 지원의 방식을 탈피하여 철저하게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 무형문화재 제도와 상호·연계 발전 도모하여야 한다.
 - 명장지정과 단발성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명장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숙련기술과 경험이 타인에게 전수되는 풍토로 전환하여 더 이상 국가지정 대한민국명장이나 무형문화재 제도의 지역 내 대리만족 제도라는 오명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연계발전의 명실상부한 풀뿌리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타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과의 융합, 소비자와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촉매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된다.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는 고양시 공예인의 자긍심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고양시 공예산업의 새로운 미래 가치 달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속 가능한 수공예 인적자원 플랫폼 가치 체계 구축에 비전과 목표가 있다.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언

- 고양시 공예명장제도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문제해결 동력(Problem Driver)과 혁신동력 (Innovation Driver)이 상호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효율성 및 지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사업성공의 충분조건으로 제시한 명장기술전수 제도인 고양 마이스터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해야 할 혁신동력(Innovation Driver)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며 공예산업 선점 우위성을 점할 수 있는 핵심성공요인(KSF: Key Success Factor)으로 파악된다.
- 고양시가 공예산업 중심의 혁신도시를 구축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전문조직, 그리고 관련 조례와 중장기 전략의 확고부동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선행되어 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이현정, 조동익(2019).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2019).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 최연수.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4호

발행일 2020.02.25.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